

# 지역 중기들 “납품대금 연동제 잘 모른다”

## 광주상의, 중기 110곳 의견조사

오는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원자재 가격 변동에도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고 납품할 수 있게 되지만, 여전히 지역 기업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경영 위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임에도 정착 지역 기업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과 정보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광주·전남 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지역기업 의견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전체 응답 기업들의 이해 정도는 여전히 ‘보통 수준’(46.4%)에 머물렀다.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33.6%에 달

10월부터 본격 시행... 원자재값 변동 때 ‘제값’ 받고 납품 가능 제도 이해도 ‘보통’이거나 ‘낮은 편’ 80%... 교육·정보제공 시급 ‘경영 위험 부담 완화’ 기대 속 ‘원청기업 거래처 변경’ 우려도

했다.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20.0%에 불과했다. 거래유형별로 보면 원청(위탁) 기업은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하청(수탁) 기업은 낮았다. 원청은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이해 정도에 대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0%였으나, 하청은 14.0%에 머물렀다.

제도 시행이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보통’(49.1%), ‘긍정적’(42.7%), ‘부정적’(8.2%) 순으로 나타나는 등 원청기업 모두 납품대금 연동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긍정적인 기업들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부담 완화’(91.5%·이하 다중응답)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어 ‘상생협력문화 조성’(10.6%), ‘위탁제품 공급망 안정화’(8.5%) 등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다. 이와 달리 부정적인 기업들은 ‘원청기업의 거래처 변경’(44.4%)을 가장 우려했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거래 제한 및 정부개입 확대 등 시장조정기능 저해’(33.3%), ‘경영기밀 유출 우려’(22.2%)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한 이력이 없다’는 응답이

97.3%로 대다수였다. 참여했던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향후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 기업들은 물품 등의 명칭과 주요 원재료 등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36.4%)을 가장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소기업, 거래 기간 90일 이내, 납품대금 1억원 이하 등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22.7%), ‘불성실한 협의, 약정서 미발급, 탈법행위 등 위반 시 제재 조치’(17.3%), ‘동행기업 참여 시 인센티브 등 지원사항’(16.4%) 순이었다.

납품대금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로 응답 기업의 43.6%가 ‘세제·금융상의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41.8%)을 꼽았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18.2%)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한편 응답업체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으로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업체들은 ‘세제·금융상의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더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에 따른 ‘경영 위험부담 완화’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53.5%)을 가장 필요로 했고, 제도 시행에 따른 ‘원청기업의 거래처 변경’을 우려하는 업체들 또한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50.0%)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경영 위험부담 완화 등 지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추진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얼루어 그린 캠페인’ 참가. 삼성전자는 최근 남산서울타워에서 열린 ‘2023 얼루어 그린 캠페인’에 참가해 비스포크 냉장고의 지속 가능한 푸드 라이프를 소개했다. 전사관 ‘이상한 포토존’에서 방문객들이 비스포크 냉장고와 펭귄 그로브몬스터, 김은하 작가의 업사이클링 작품과 함께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벤처포럼’ 개최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4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제19회 벤처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가 주제강연을 맡아 인공지능(AI)과 4차산업의 대표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챗GPT의 최신 트렌드와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박 대표는 미래사회 키워드로 인공지능, 네트워크, 인구, 1인기업, 아웃소싱 등을 제시하면서 “인류가 수만년에 걸쳐 이룩한 농경, 산업, 정보화시대를 뛰어넘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주제강연에 앞서 ㈜아치서클 박세환 대표의 벤처기업 혁신스토리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사진>

매장속 미디어광고 플랫폼 아치미디어는 소상공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매장 속 혁신 지능형 미디어광고 플랫폼이다.

아치미디어는 식당 테이블등 등 매장 속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광고매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광고 송출 관리 솔루션’을 광고주에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시내의 주요 식당의 테이블등 더디바이스에서 현재 광주비엔날레 홍보영상도 송출되고 있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살아있는 성공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제강연과 최신기술 및 사업아이템을 소개하는 벤처포럼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금호타이어 UAM용 ‘에어본 타이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금호타이어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에서 콘셉트 부문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4년에 개최돼 올해 70주년을 맞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올해는 56개국으로부터 약 1만1000개의 출품작이 경쟁을 펼쳤다.

수상 제품인 ‘에어본 타이어’ (Airborne Tire)는 도심형항공모빌리티(UAM)용 시스템 타이어로, 국내 UAM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자기장을 이용한 UAM 시스템 타이어를 기획했다.

‘에어본 타이어’는 자기장 서스펜션 및 회전 휠

장치를 통해 별도의 휠모터 없이 전기만으로 스스로 바퀴를 회전시켜 항공기를 움직일 수 있고, 항공기가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자기장의 힘만을 이용하여 타이어 바퀴가 공중에 떠 있게 된다. 고무 부품과 에어리스 부품이 혼합된 구성으로 수직 이착륙에 부드러운 착륙이 가능하도록 해 승객들이 느낄 수 있는 충격을 감소시켰다.

조만식 연구개발본부장은 “금호타이어는 올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이어 iF 디자인 어워드에도 수상 실적을 보이며 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디자인의 혁신성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



연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본 타이어는 지난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2’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신성장 4.0 전략’으로 미래형 모빌리티에 투자하며, UAM을 2025년부터 상용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해양에너지, AI 기반 전기방식 관제시스템 특허 “내년 복권 판매 7조3천억” 기재부 “올해보다 8.1% 늘 것”

해양에너지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에너지가 특허 출원한 기술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방식전위를 측정해 인공지능을 활용, 전기방식 부적합의 원인과 위치를 예측하는 관제시스

템과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기존 도시가스 지하매설 시설물의 방식전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마다 테스트 박스(Test Box)를 설치해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방식전위를 측정해 피복손상 여부 등을 검사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특허로 통신이 가능한 센서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전기방식 부적합 발생 위치를 예측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업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출원한 특허를 통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선도적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ZERO(0) 문화가 더욱 더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7조3000억원여치의 복권이 팔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한 수익금은 3조원가량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5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58차 복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복권 예상 판매액을 올해(6조7429억원)보다 8.1% 증가한 7조2918억원으로 잡았다. 온라인복권(로또 6/45) 예상 판매액이 5조9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쇄복권도 8393억원가량 팔릴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복권은 올해보다 26.7% 증가한 1617억원어치가 팔릴 것으로 예상됐다.

복권이 계획대로 판매되면 2024년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수익금은 2조96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489.02(-34.48)
코스닥	838.71(-16.52)
금리(국고채 3년)	3.230(-)
환율(USD)	1332.20(-2.60)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기능선수회 ‘숙련기술 봉사활동’ 펼쳐

동구 녹동마을서 주택 보수·현옷 수선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허서혁)는 최근 광주기능선수회(회장 양인옥)와 회원 등 60여명과 함께 광주시 동구 녹동마을에서 ‘숙련기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숙련기술 봉사활동은 숙련기술인 각자가 보유한 전문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기능선수회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이 모여 2000년 결성된 단체로 매년 농촌 및 인근지역을 찾아 숙련기술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계·전기·금속 분야에 입성한 회원이 많고, 공예분야의 이·미용, 양복·양장·한복분야, 요리·제과·제빵분야 등 다양한 종목 입상자들이 구성된 모임이다.

이들은 주민들의 집을 찾다니면서 노후 대문

수리·요점, 방충망·전기시설 보수, 현옷 수선, 파마 및 염색 등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했다”며 “향후에도 지역 숙련기술인 단체와 광주자동화설비공학교 학생과 공단 직원들도 봉사에 참여했다.

허서혁 본부장은 “광주기능선수회 회원뿐만 아니라 미래 명장을 꿈꾸는 학생들과 공단 직원이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해 각자가 보유한 숙련기술을 지역주민들과 나눌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향후에도 지역 숙련기술인 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기능·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과 숙련기술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